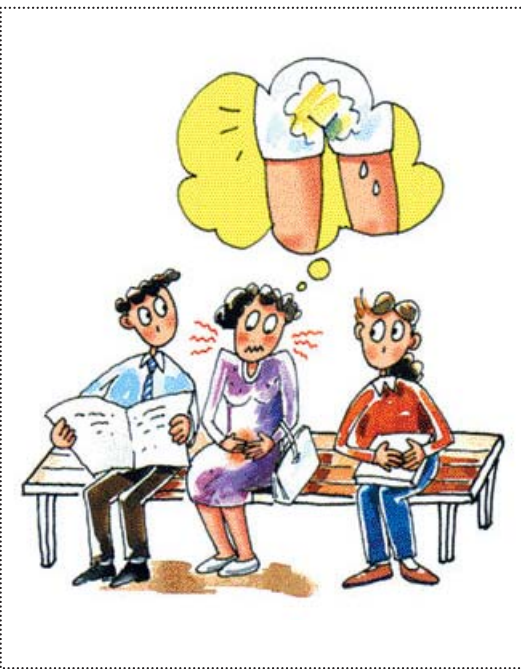


여성 요실금 종류와 치료법

50대 거의 절반 해당... 발생 원인도 다양

자신도 모르게 짙은 소변이 새는 요실금으로 남몰래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 속옷을 적시는 질환으로, 중년 이후 여성의 30~40%가 겪는 중년 여성의 대표적인 질환이며, 노인층에서는 더 높게 발생한다.

복합성, 골반 운동... 심하면 수술 받아야
절박성, 식이요법·방광훈련·약물 치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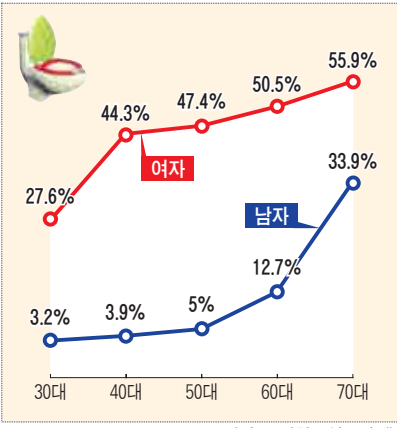


◇요실금이라고 다 같지 않다=요실금은 복합성·절박성·혼합성·일출성·심인성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은 복합성·절박성·혼합성 요실금이다.

복합성 요실금은 긴장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며, 분만 등에 의해 요도 괄약근의 기능이 낮아져서 웃거나 재채기·뱀뱀기 등 배에 압력이 증가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다. 심하면 걷거나 앉았는 상태에서도 소변이 나오게 된다. 단 방광기능은 정상이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참을 수 없어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있고, 화장실에 가거나 속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으로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이 저절로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소변을 오래 참았거나 손

■우리나라 남녀 요실금 유병률



(자료: 대한요실금학회)

을 씻을 때, 물소리를 들을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는 급성 방광염·신경질환·당뇨병·방광 출구 폐색 등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될 때도 있지만,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일출성 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소변이 넘쳐흐르는 경우로 방광 수축력 상실 또는 요도 폐색이 원인이다.

심인성 요실금은 특별한 신경학적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방광과 요도의 기능은 정상이다. 차폐 노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다.

◇수술만이 능사 아니다=요실금 치료 방법은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다.

복합성 요실금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케겔운동이라는 골반근육 운동이나 전기자극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고, 증상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권장된다.

수술적 치료는 드물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인테이프 수술을 받은 뒤 방광천공·요도천공·수술테이프가 잘 내로 탈출돼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배뇨통·요 자극 증상·반복되는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부부생활에 애로가 생기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수술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방광훈련, 약물 치료 등이 주요 치료법이다.

여성 요실금 치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순수한 복합성 요실금은 그리 많지 않으며, 복합성과 절박성 요실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성 요실금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떤 형태의 요실금이 더 심한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조선대병원 비뇨기과 노준 교수는 "요실금은 발생원인과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요실금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난 뒤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도움말=조선대병원 비뇨기과 노준 교수)

노인성 질환 양·한방 협동진료

광주공원 인근 '빛고을 요양병원' 문 열어

노인성 질환과 각종 만성 질환자들의 요양과 재활을 겸한 요양병원이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지난 11일 광주시 남구 서동 광주공원 인근에 문을 연 빛고을 요양병원(병원장 최춘동)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침구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등이 개설되는 등 양·한방 협동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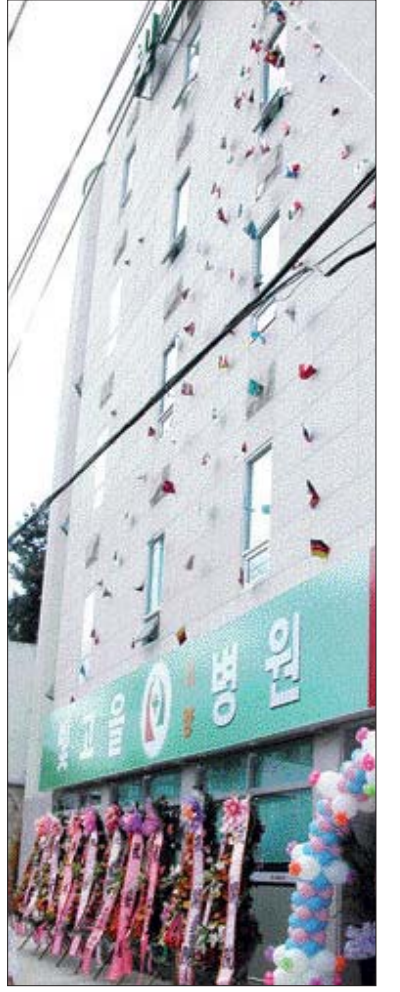
연건평 3천636㎡에 총 200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각 분야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비롯한 진료진과 전문 간호인이 각 병실에 배치돼 24시간 환자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살펴 주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도심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보호자들의 수시 면회가 쉽고, 전담 종교인을 통한 환자들의 신앙 생활도 지원된다.

병원 측은 전담 영양사를 통해 노인 환자들에게 알맞은 다양하고 신선한 영양식과 특별식(당뇨식·고혈압식·저염식) 등을 제공하는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춘동 원장은 "현재 날로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 환자들의 심각한 문제와 장기 요양환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병원이 일부나마라도 부담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노인성 질환과 각종 만성 질환자들의 요양과 재활을 돕는 빛고을 요양병원이 지난 11일 광주시 남구 서동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구운 계란 식중독 조심하세요

소비자 불만 신고 급증...식약청 주의 당부

여름철 편의점과 절점방, 휴게소 등에서 판매하는 구운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절점방·터미널·도로변 휴게소·소매점 등에서 간식용으로 판매되는 구운 계란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거나 상한 냄새가 나는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조·유통, 판매업소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구운 계란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표면에 균열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전에는 제품에서 상한 냄새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

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유통·판매업자들은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여름철에는 빠른 시간내에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유통·운반하며 판매할 때에 균열 및 곰팡이 발생 여부를 확인해 정상제품만 판매되도록 해달라고 식약청은 요청했다.

제조업자들에게 대해서는 깨지지 않은 신선한 계란으로 제조하고 유통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에 철저히 하며 완제품은 반드시 균열상태 등의 제품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구운 계란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제품 포장방법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텔런트 김승환씨 대장암 홍보대사

국내 개발 세계 최소형 캡슐 내시경 출시

촬영시간 길어지고 비용도 외국 제품 절반...인트로메디 시판 나서

텔런트 김승환(43·사진)씨가 대장암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을 되찾은 텔런트 김승환씨를 대장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승환씨는 앞으로 '제1회 대장암의 날' 캠페인에서 대장암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대장암 치료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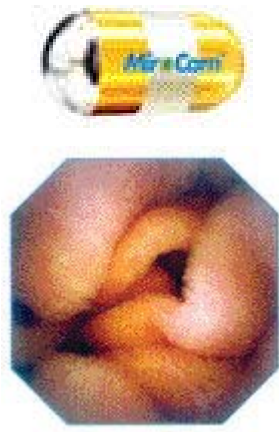
텔런트 김승환씨는 2005년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으나, 조기에 발견해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사례라고 학회는 설명했다. /연필뉴스

국내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먹는 내시경' 제품이 출시됐다. 의로기기 업체인 '인트로메디'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개발,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계 최소형 캡슐 내시경 '미로캠'(Miro Cam)을 최근 출시, 시판에 나섰다

지름 11mm, 길이 24mm 크기의 캡슐 모양의 카메라인 '미로캠'은 물로 삼킨 뒤 몸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질병을 찾아낸다. '미로 캠'은 구강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며 1초당 3개의 영상을 12시간 동안 촬영해 허리에 차고 있는 수신기에 전송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대변과 함께 3일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

'미로 캠'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3개 회사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는 캡슐 내시경보다 더 작고 촬영시간이 4시간 더 길어지는 등 유효성을 더욱 높인 게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7월~10월까지 신촌세브란스과 인하대병원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미로 캠'의 평균 촬영시간은 9시간 51분으로 외국 제품(현재 3개사)보다 최대 3시간 길었으며, 실험 대상자의 68.1%에서 소장 위용과 혈관구조 등 세부형태가 뚜렷이 관찰됐다. 특히 외국사 제품이 병원에 따라 120~140만원 상당의 고가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 반해 '미로 캠'은 60~70만원 정도여서 환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인트로메디 이혜영 상무는 "캡슐 내시경은 기존 내시경



세계 최소형 캡슐 내시경 미로캠(위)과 미로캠이 찍은 소장 모습.

이 할 수 없었던 소장 질환 검사에 사용할 수 있고, 구토 및 통풍 등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수출을 통해 3년 이내 세계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 목표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LCE Tower (주), highlighting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y listings.

Advertisement for Ilgong Incheon, offering various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dvertisement for Donga Incheon, providing information on PC services an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ational Public Incheon, listing various public services and real estate options.

Advertisement for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truction, featuring a wide range of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